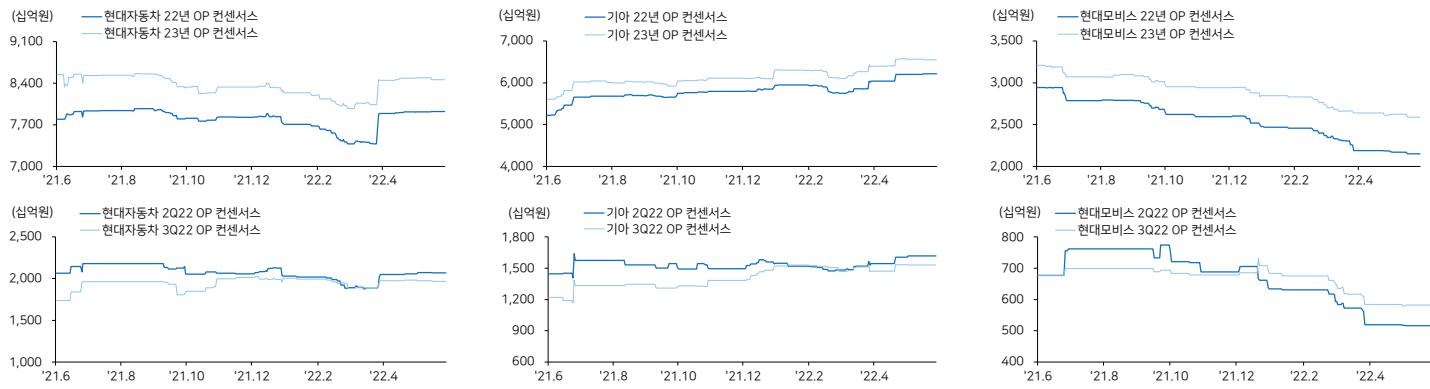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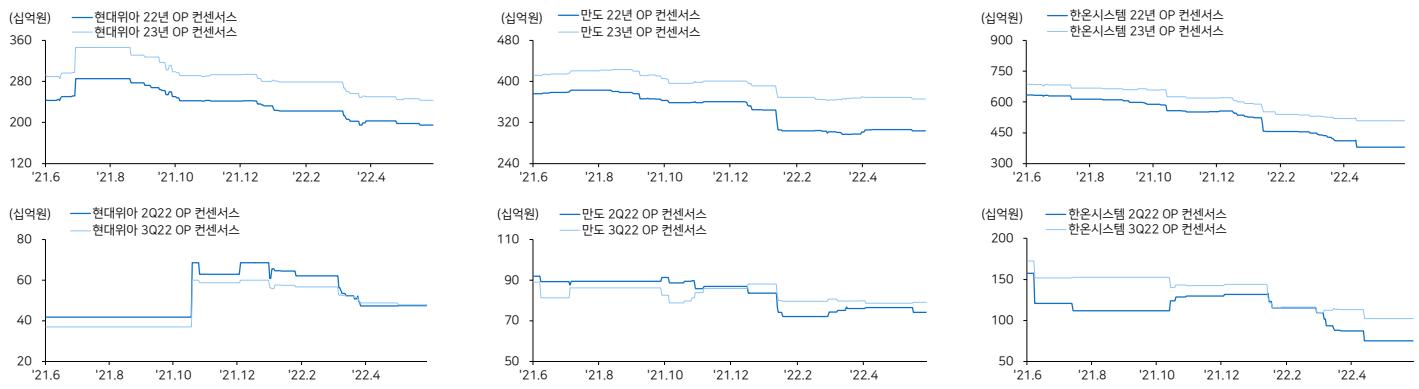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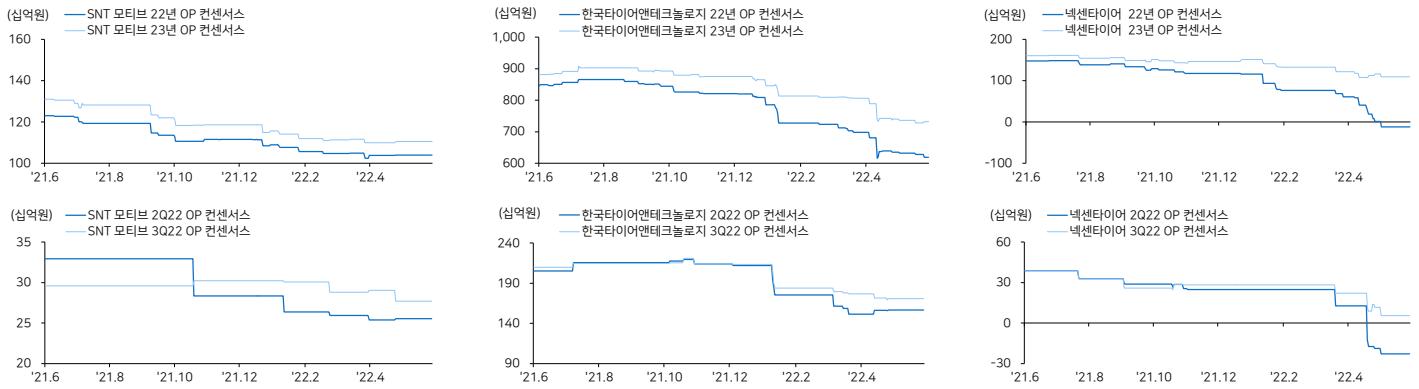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채용인력 80%는 SW·AI 관련... 국내 미래차 인재 양성체계 구축 시급 (머니S)

미래 자동차산업에서 SW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관련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빨라지고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기술이 자동차에 대거 텁채되면서 IT기술을 활용한 SW분야 인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
<https://bit.ly/3o1tEog>

GM, '볼트EV'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서 제외...단종 수순 밟나 (THE GURU)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소형 전기 해치백 모델 '볼트EV'가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음. 최신형 플랫폼인 '얼티엄'(Ultium) 적용 모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대체 모델로 비슷한 가격대의 중형 EV SUV '이쿼녹스'를 내세울 계획.
<https://bit.ly/3aCoYKR>

EV disruptors hit industry speed bumps that have plagued legacy automakers for years (Reuters)

SW와 기술 중심 접근을 이용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탄생했던 신생 전기차 기업이 이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중. 재정적으로 강한 회사와의 파트너십 또는 상기 계약은 스타트업의 생존선이며, 이를 찾지 못한다면 파산할 수 있음.
<https://reut.rs/3IBDQiv>

Don't expect slowdown in China NEV growth before penetration reaches 50% (CNEV Post)

중국 내수 시장의 NEV 보급률이 50%에 도달하기 이전에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중국의 상반기 NEV 판매는 260만대로 YoY +120% 증가함. 신규 전자제품을 가장 수용하기 쉬운 시장은 아시아이며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의견.
<https://bit.ly/3lEW02P>

BMW '테슬라처럼 원통형 배터리 쓴다'...삼성SDI 파트너 '유력' (THE GURU)

독일 BMW가 차세대 배터리로 테슬라 4680 배터리와 유사한 구격의 하이니켈 원통형 제품을 낙점. 돈독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SDI가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 신규 배터리는 '25년 BMW의 EV 모델에 탑재될 전망.
<https://bit.ly/3ALToya>

미 르네사스, 태풍 피해 복구...차량용 반도체 생산 재개 (디지털데일리)

르네사스 구마모토 펑은 지난 5월부터 태풍 영향으로 생산을 중단한 바 있음. 송전선에 낙뢰를 맞아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까닭. 르네사스는 당초 복구에 2주 이상을 예상했지만 1주만에 완료하여 조업을 재개했다고 알려짐.
<https://bit.ly/3z5EILHs>

Panasonic to build battery factory in Kansas to supply Tesla with new 4680 cell (electrek)

Nikkei의 보도에 따르면 Panasonic은 Tesla에 새로운 4680 셀을 공급하기 위해 Kansas에 새로운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할 계획. 해당 공장은 Tesla의 넥서스 공장에 셀을 공급하기 좋은 위치.
<https://reut.rs/3BwNjAv>

EV maker Polestar nearly matches 2021 volume with 125% first-half sales increase (Auto News)

EV 브랜드 폴스타의 상반기 판매량은 YoY +125% 증가한 21,200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연간 판매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 올해 판매목표는 65,000대이나 중국 럭다운으로 50,000여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P85dD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